

‘천재 소녀’ 에이스 성장 금메달 ‘꼭’ 집어 올게요



한국 배드민턴에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안세영. 사진은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 투어 파이널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세계랭킹 6위 카롤리나 마린을 꺾고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D-1 …유망주 배드민턴 안세영

도쿄올림픽 유망주

배드민턴

안세영

- 출생 2002년
- 소속 삼성생명
- 신체 169cm / 57kg

주요 기록

- 2018년 아이리시 오픈 금메달
- 2019년 뉴질랜드 오픈 금메달
- 캐나다 오픈 금메달
- 아키타 마스터스 금메달
- 프랑스 오픈 금메달
- 광주 코리아 마스터스 금메달
-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신인상
- 2021년 BWF 월드투어파이널 2020 동메달
- BWF 여자단식 세계랭킹 8위

세대교체 과정에서 침체기를 맞은 한국 배드민턴에 안세영(19·삼성생명)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배드민턴 강국 명성을 떨치던 한국은 2016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노폴드’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노메달’로 자존심을 구겼다.

이용대 등 스타 베테랑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가운데 신예 선수들이 미처 성장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안세영이 혜성처럼 나타나 배드민턴 대표팀에 희망을 줬다.

당시 중학생(광주제중3)이던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아 화제가 됐다. 중학생이 성인 대표팀에 합류한 것은 이용대 이후 안세영이 처음이다.

‘천재 소녀’ 안세영은 많은 관심과 부담을 이겨내고 한국 여자 단식의 에이스로 쑥쑥 성장했다.

2018년 아이리시 오픈에서 첫 성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2019년 뉴질랜드 오픈, 캐나

4년 전 광주제중 3때 태극마크 이용대 없는 대표팀 ‘희망으로’ 기본기·기술에 힘·정교함 더해 관리장성 넘으면 금메달 가능

다 오픈, 아키타 마스터스, 프랑스 오픈, 광주 코리아 마스터스 등 5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BWF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대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올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왕중왕전’인 BWF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제 고등학교(광주제고)에서도 졸업한 안세영은 여자 단식 세계랭킹 8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여자 단식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다. 명실상부 여자 단식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것이다.

안세영은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당당히 메달에 도전한다.

어린 시절부터 탄탄한 기본기와 다양한 기술을 자랑했던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힘과 정교함을 더해 실력을 업그레이드했다.

여기에 타고난 성실성과 근성, 대범함까지 갖춰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났다.

승리욕이 강한 안세영은 올해 1월 태국에서 연달아 열린 국제대회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에게 번번이 패하고서도 “많이 배웠다. 지더라도 계속 붙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세계랭킹 4위인 마린은 지난달 무릎 수술을 받아 도쿄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안세영은 “마린 선수가 빨리 회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패욕을 빌었다.

마린이 이탈했지만, 도쿄올림픽에서 안세영이 넘어야 할 선수들은 많다.

세계랭킹 1위 타이즈잉(대만), 2위 천위페이(중국), 3위 오쿠하라 노조미(일본), 5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6위 라차논 인타논(태국), 7위 푸살라 신두(인도) 등이 도쿄에서 안세영과 메달 경쟁을 벌일 라이벌들이다.

특히 올림픽 포인트 랭킹(로드 투 도쿄)으로는 1위인 천위페이는 안세영에게 4전 전승을 거둔 ‘전적’이다. 안세영은 세계랭킹 9위인 허빙자오(중국)에게도 1패로 밀려 있다.

하지만 안세영은 타이즈잉(1승 1패), 야마구치(2승 2패), 인타논(1승 1패)과는 호각을 다투고 있고, 푸살라에게는 1승으로 앞서 있다. 오쿠하라와는 아직 겨룬 적이 없다.

결국 안세영은 도쿄에서 중국 선수들에 대한 열세만 극복하면 메달 획득 가능성은 충분하다.

메달을 따면 안세영은 20세에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이용대(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 라경민(1996 애틀랜타 혼합복식 은), 방수현(1992 바르셀로나 여자단식 은)의 최연소 배드민턴 올림픽 메달 기록을 19세로 낮춰 신기록을 세운다.

첫 올림픽 출전을 앞둔 안세영은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하루도 안 쉬고 준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엄청난 훈련량에 지치지 않을까 주변의 걱정을 사고 있지만, 안세영은 “나는 젊은 게 강점”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김학범호 순항 ‘와일드카드’에 달렸다

오늘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1차전

합류 늦은 황의조·권창훈·박지수
기대 못미친 리허설 뒤 도쿄 입성
올림픽 최고 성적 향한 여정 나서

한국 남자 축구 올림픽 최고 성적에 도전하는 김학범호의 ‘와일드카드’가 다소 아쉬웠던 모의고사를 뒤로 하고 완성도 높은 실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5시부터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B조 1차전으로 2020 도쿄올림픽 일정을 시작한다.

올림픽 출전 가능 연령대인 23세 이하의 정예 멤버에 김학범 감독이 고심 끝에 고른 와일드카드 공격수 황의조(보르도), 미드필더 권창훈(수원), 수비수 박지수(김천상무)가 메달을 향한 여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림픽 메달로 가는 길의 관건은 역시 와일드카드의 활약이다.

이런 올림픽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은 대체로 지역 예선의 첫 관문 격인 2019년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예선을 시작으로 2년 넘게 대회와 훈련을 거듭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올림픽 1년 연기로 최종 엔트리 경쟁과 기량 점검의 기회가 그만큼 더 있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사정이 다르다. 황의조와 권창훈은 올림픽 엔트리가 확정된 뒤 이달 초 최종 소집훈련 때야 들어와 13일 아르헨티나와의 평가전에 후반 교체 출전하고 16일 프랑스를 상대로는 선발로 나서서 리허설을 치렀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지만, 권창훈이 프랑스전에서 페널티킥 득점만 한 차례 기록했을 뿐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인 못한 가운데 일본에 입성했다.

첫판에서 승점 3을 따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후 다가올 경기들의 부담감이 커지는만큼 뉴질랜드 수비진을 상대로 활로를 열어갈 황의조와 권창훈의 어깨가 무겁다.

김학범호 막사를 탄 박지수는 출국 직전 급히 합류하는 바람에 다른 두 선수만큼의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기존 중앙 수비진을 이룬 정태욱(대구), 이상민(서울 이랜드)

등과 발을 맞추는 기간이 첫 경기 전까지 나올 정도다.

프랑스전에선 리드를 잡고도 후반 막바지 연속 실점해 역전패하는 등 두 차례 평가전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한 대표팀으로선 수비 안정도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박지수와 후배들의 조화가 중요해졌다.

올림픽 남자 축구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23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도입됐고, 그다음 대회인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3명까지 23세 초과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축구는 역대 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와 관련해 해선 골격을 겪었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때 부상으로 도중 교체된 이임생,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합류가 불발됐던 홍명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으로 교체나 제외됐던 김남일, 송종국 등 스타 선수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

정성룡, 박주영, 김창수가 와일드카드로 활약했던 2012년 런던 대회 맨 사상 첫 메달이 나왔으나 대회에 앞서 박주영의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5년 전 리우에선 8강에서 고배를 든 와일드카드 손흥민(토트넘)의 눈물이 마지막 장면으로 남았는데, 이번엔 황의조, 권창훈, 박지수가 함께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김경문호’ 세 차례 평가전

23~25일 상무·LG·키움

‘김경문호’가 상무, LG, 키움을 상대로 실전 감각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이 23일 오후 6시 30분 상무와 평가전을 갖는다. 24일 오후 5시에는 LG와 대결하고, 25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키움과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모두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대표팀은 23일 KBO 미래 선수들로 구성된 ‘라이징 스타팀’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20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올스타전과 함께 라이징스타팀과의 평가전이 취소됐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10개 구단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하는 게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경기력 유지를 위해 한 팀 선수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구단과의 평가전이 추진됐고 상무, LG와의 경기가 잡혔다.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경기력’이다. 7월 들어 비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취소돼 리그일정이 들쭉날쭉하게 진행되면서 선수들의 ‘감’이 떨어졌다.

대표팀은 세 차례 평가전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뒤 26일 일본 도쿄로 떠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9일 오후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앤들러스 클럽하우스에서 올림픽 축구 대표팀 황의조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